

지역 창업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자리에

중기부, 전국 19개 센터와 간담회 가져... '모두의 창업' 현장 의견 청취·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를 한자리에 모아 창업 정책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1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성숙 장관과 전국 19개 창경센터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비롯한 창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창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창경센터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등 국가 창업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실행하는 핵심 거점기관으로, 창업 생태계 확산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의 홍보 방식, 참여 확대 방안, 지역별 운영 애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지난 3월 26일 접수 시작 이후 5월 11일

기준 신청자 3만 명을 돌파했다. 신청자 증가 속도도 점차 빨라지며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전국 100여 개 운영기관을 통해 접수된 창업 아이디어를 심사해 최종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멘토링, 창업활동 자금, 인공지능(AI) 솔루션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미션발자이에게도 재도전 상담과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창경센터는 향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핵심 실행 기관으로 참여해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창경센터는 정부 창업 정책이 지역 현장까지 연결되는 핵심 거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은 도내 농·축협 가운데 우수한 경영 성과를 거둔 조합장 3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장상 시상

전북농협, 회현·변산·화산농협 조합장 3명 표창

전북농협이 지역 농·축협의 경영 내실화와 우수 성과 확산을 위해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장상'을 시상했다.

전북농협은 도내 농·축협 가운데 우수한 경영 성과를 거둔 조합장 3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종합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 수익성,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원 복지 증진 등 경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올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농협은 회현농협(조합장 김기동), 변산농협(조합장 김병식), 화산농협(조합장 김중채) 등 3곳이다.

전북농협은 이들 조합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조합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이 안정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농·축협의 자립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켜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최고 연 11% '도전 루틴 적금' 출시

매일 1만원 저축하면 금리 혜택... MZ세대 맞춤 소액 재테크 상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MZ세대의 소액 재테크와 '갓생' 트렌드에 맞춘 고금리 적금 상품을 선보였다.

전북은행은 13일 매일 저축 습관을 실천하면 최고 연 11%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전 루틴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1.0%에 매일

1만 원씩 입금할 때마다 0.1%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기간은 31일 이상 100일 이하이며, 100일 동안 매일 납입할 경우 우대금리 1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연 1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전북은행 적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으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하루 납입 한도는 1만 원이다.

전북은행은 이번 상품이 반복적인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저축 습관과 개인만의 '루틴'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일 푸시 알림 기능을 통해 저축 실적을 유도하며, 연속 납입에 실패하더라도 납입 횟수만큼 우대금리가 누적되는 구조를 적용해 고객 부



담을 낮췄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모바일 앱 '축뱅크'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 6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정읍시,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현장에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적용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공공실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조달, 민간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은 일반트랙과 스케일업 트랙으로 구분해 총 16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당 최대 6000만 원 규모의 실증 지원금이 제공된다.

또한 한국조달연구원과 연계해 혁신 제품 지정 컨설팅, 공공 구매상담회,

혁신제품 추천 등 공공조달 진출을 위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공공 분야에 적용 가능한 혁신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 소재 창업·벤처기업이다.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며 특허, 실용신안, NEP, NET 등 기술 권리를 확보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테스트베드형, 공공수요형, 기업제안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테스트베드형은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4곳에서 안전·환경·건설관리 기술 등을 실증하며, 공공수요형은 순창군이 제안한 '농어촌 마을 버스정류장 택시 콜 시스템 구축'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5월 13일부터 오는 6월 8일 오후 4시까지이며, 전북테크노파크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략기술 기반 R&BD 지원 강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유진혁, 이하 전북특구본부)가 전략기술 기반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 혁신에 나섰다.

전북특구본부는 13일 오후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전북특구 육성사업 착수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자들의 과제 수행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북특구 육성사업은 지방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역자율 R&D와 실질적 기술사업화(R&BD) 성과 창출을 목표로 총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7개 기관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비 집행 절차와 연구노트 작성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2026년도 사업은 기존 농생명·바이오 중심 특화 분야를 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전북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선정 과제 중 첨단바이오(30.8%), 인공지능·로봇(23.1%), 이차전지(15.4%)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약 70%를 차지해 딥테크 중심 기술사업화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혁 전북특구본부장은 "이번 착수설명회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공공기술을 제품화·양산화로 연결하고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전북 혁신기업들이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상전문기관' 공식 지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공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5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위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폭이 확대되며, 토지보상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보상관리사 24명을 양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토지·물건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상업무 수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드론 영상 기반 조사와 지적정보를 연계해 보상 대상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보상자료 확



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공사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역량을 보상 전 과정에 융합해 공공보상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머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국토정보 전문기관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까지 담당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지적·공간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